

올해 학교 무상급식 1073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도·시군청 각각 586억원·390억원·친환경농산물비 9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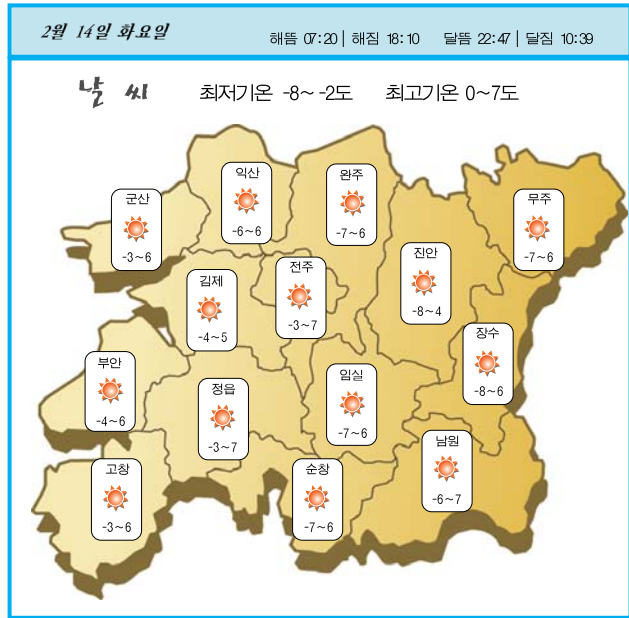
대상 학생수 22만8004명

올해 학교 무상급식에 총 976억원이 소요된다. 초등학교·중학교·농어촌지역 고등학교·학력인정교는 전북교육청과 도·시군청이 각각 50%를, 공립유치원·특수학교는 전북교육청이 100%를 도시지역 고등학교·학력인정교는 전북교육청이 50%(단 정읍시는 정읍시청도 50%)를 부담한다. 전북교육청과 도·시군청이 각각 586억원과 390억원을 지원한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는 공립유치원 8,934명, 초등학교 9만7,767명, 중학교 5만3,649명, 고등학교 6만16,290명, 특수학교 1,137명, 학력인정교 227명 등 총 22만8,004명이다. 지원일수는 학기 중 정규 수업의 중식일을 기준으로 190일(공립 유치원은 180일)이다. 한편 학교 급식 1인1식당 지원단가가 200원 인상되었으며, 공립유치원 2,200원, 초 2,400원, 중·고·학력인정교 3천1백원, 특수학교 2,900원이다.



구제역 현장대책회의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구제역 방역 현장방문으로 전북 정읍시를 방문, 현장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비와 별도로 농산물비(친환경농산물 포함) 97억원이 도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 지원되어 내년도 전북도의 급식만족 /정해은기자



전북교육청 정보화 지원 자격 대상·지원 수량 확대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정보화 역기능 조레에 발맞추어 맞춤형 정보화 자격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량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자격 지원 대상 범위는 PC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수량은 PC가 1천35대,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 매월 1만6천명 학생 가정에 1년간 무상 지원된다. PC지원의 경우 PC 미보유자와 노후 PC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PC가 없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전 지원한 PC 중 컴퓨터 고장으로 정상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는 PC에 대하여 포맷 후 재설치 등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정보접근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5년 이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컴퓨터를 지원받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서학동예술촌,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보존된다

전주시가 미래유산 1호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학동예술촌 미래유산 마을재생사업이 주민설명회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 등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전주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 심장터로 만드는 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서학동예술촌 일대 약 20만6000㎡를 대상으로 한 마을재생 계획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서학동 예술촌을 마을공동체 예술마을로 가꾸는 미래유산 마을재생사업을 본격 추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학동예술촌 주변의 다양한 미래유산들을 발굴하고, 한옥마을·남부시장, 전주천, 남부시장, 전주교

육대학교 및 부속초등학교, 국립무형유산원 등 주변 자원들과 연계시켜 지립형 예술마을로 재생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근·현대 건축 조사 및 마을이야기 등의 유·무형 자산 발굴·보존, 주택개량 지원 △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 공동체 육성지원 등이다. 먼저, 시는 서학동예술촌 주변의 골목길 정비와 공용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래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주택을 선정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미래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도 설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미래유산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주거재생 프로그램 △테마거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마을축제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상생프로그램 등도 추

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유산을 바탕으로 한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재생대학도 운영된다. 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기관과 마을협의체,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주도시혁신센터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동서학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동예술촌 미래유산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재기자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역량이 있는 마을리더를 발굴·육성하는 등 근·현대 미래유산을 발굴·보존하는 전주형 주거지 재생 모델을 구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업예정지 현장답사 및 기초조사, 전문가를 포함한 행정 TF팀 회의, 시민 포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서학동 예술촌 주변을 제2의 미래유산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만이 가진 삶의 흔적과 문화자산 역사콘텐츠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재생한다면 그 어떤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미래유산을 보존해 10년, 20년 후에는 제2의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공문서 '감소추세'

2015년 대비 4.8% 감축.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만이 가진 삶의 흔적과 문화자산 역사콘텐츠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재생한다면 그 어떤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미래유산을 보존해 10년, 20년 후에는 제2의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실화를 위해 각급기관 공문서 감축 추진 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학교발송 공문서는 2015년 대비 414건(△3.7%), 신학기 3월 공문서는 541건(△44.7%)이 감축되었으며 14개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발송 공문서가 7,459건(△18.7%) 감축되어 학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문서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해 학교발송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문서 감축 직무교육을 강화하며 신학기 공문서 발송을 최소화하는 등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교육, 긍정적 변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